

한·중·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

우리 대한민국, 중화인민공화국, 그리고 일본국 지도자들은 2008년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회동하였다.

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를 토대로, 향후 3국 협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.

한·중·일 3국의 경제는 역동적이고, 탄력적이며,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. 3국은 긴밀한 문화적·인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. 우리는 도전과 기회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. 우리는 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는 비전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, 한·중·일 3국협력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.

우리는 정치적 신뢰 제고, 경제·통상 및 사회·문화적 교류 증진, 금융협력 강화 등 측면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온 협력 성과에 만족을 표하며,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향후 3국간 협력을 보다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.

우리는 앞으로 3국간 협력이 개방성, 투명성, 상호 신뢰, 공동 이익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원칙 하에 이루어질 것이며, 또한 3국간 협력이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ASEAN+3, 동아시아정상회의(EAS), 아세안지역안보포럼(ARF),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등 보다

광범위한 지역협력체제의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. 우리는 또한, 한·중·일 협력이 세계 경제 및 금융상황 관련 심각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,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정치, 경제,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기로 하였다.

우리는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·중·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의 길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.

우리는 다른 계기와는 별도로 3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, 향후 한·중·일 정상회의를 3국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. 내년에 중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.

2008년 12월 13일

후쿠오카

이 명 박
대한민국 대통령

원자바오
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

아소 타로
일본국 총리대신